

메탄,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동시베리아해 해빙으로 메탄 대량방출 ... 피해규모 60조달러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권 메탄가스 방출피해가 60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와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 Daily)는 7월24일 북극 영구동결층과 동시베리아해 해빙이 녹으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방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2006년 영국의 <스턴보고서>에 사용된 모델을 활용해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동시베리아해가 녹으면서 메탄 50기가톤을 방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메탄은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고 해저에도 하이드레이트(Hydrate)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해빙이 주는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0조달러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2℃이상 상승하는 시점도 예측보다 15-35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수면 상승 및 홍수 피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해 북극 항로 개방에 따른 이익논의 가열에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5>